

일본의 한류 현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 문화제국주의론과 문화내셔널리즘을 중심으로 -

오현식**
ohyuns@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는 말 | 3.1 문화제국주의론과 일본의 한류 |
| 2. 이론적 논의 | 3.2 문화내셔널리즘과 일본의 한류 |
| 3. 일본의 한류에 관한 분석 | 4. 나가며 |

主題語: 일본의 한류(Korean Wave in Japan),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문화내셔널리즘(Cultural Nationalism), 일본대중문화(Japanese popular culture), 내셔널적인 담론(National discourse)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문화 지형에서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은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은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의 인기와 함께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본 내에서 문화상품으로서 지위를 얻으면서 발생한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류 현상에 관한 분석은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본고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점은 한류 현상이 초래한 내셔널적인 담론이다. 해방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타자와의 대립을 통해 끊임없이 자국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프로세스가 존재해 왔다. 이는 곧 자국의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키는 결과를 양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한국에서 일본이라는 존재는 과거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역사적 상처에 기인하여, 끊임없이 적대적, 배타적 담론도 재생산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은 타자로서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됨으로서, 자국에 대한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국에 대한 내셔널리즘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인접국

* 이 연구는 2019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서울신학대학교 일본어과 조교수

가라고 하는 지정학적 관계성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교류를 통한 과정이 발생할 수 없었기에 일본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적대적, 배타적 담론만을 생산해 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시 말하면, 해방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일본이라는 국가는 단순히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협력의 관계 또는 경쟁의 관계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타자로서 기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대중문화가 국내에 유입되어 소비되었을 때, 기존의 대중문화에 관한 타자로서의 일본에 관한 담론은 한국사회에서 일본의 대중문화와의 접촉을 통한 다양한 담론이 구축되어 왔다.¹⁾

그런데 일본에서의 한류는 위와 같은 문화적 현상과는 다소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해방이후 한국의 대중문화영역에서 일본에 관한 내셔널적인 담론은 주로 일본대중문화가 한국사회에서 유입이 되어 어떠한 사회적 맥락과 접촉하여 일본에 관한 담론을 구축해 왔는지가 주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한류 현상은 이와는 다르게 한국사회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동시에 협력적이기도 하고 경쟁으로서의 타국이라는 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본의 사회구조적 맥락과의 접합을 통해 다소 다른 성격의 내셔널적인 담론을 구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소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기존의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소비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국대중문화인 한류를 공급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부각된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에서의 한류가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타자로서의 일본에 관한 담론을 구축해 왔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대중문화 영역에서 타자로서의 일본을 중심으로 어떠한 내셔널적인 담론이 구축되고 있는지를 논증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내셔널리즘²⁾이 어떠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관해 논해 보고자 한다.

1) 김성민(2014, p.13)에 의하면, 해방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일본대중문화의 위상을 ‘금지’와 ‘월경’이라는 표현으로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본대중문화가 한국에서 논의될 때 문화제국주의적 또는 포스트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에서 거론되어 온 부분을 표현했다고 이해되는데,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은 차별성을 갖는다. 즉, 해방이후 끊임없이 논의가 되어 온 타자로서의 일본이 일본대중문화가 주체가 아닌, 한류(한국대중문화)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담론을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2) 본고에서 말하는 문화내셔널리즘이란 이동연(2006, pp.177-204)의 문화민족주의라는 표현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일본의 학계에서의 표현은 문화내셔널리즘(文化ナショナリズム)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이고, 본고의 주요한 분석 대상이 일본이라는 특정국가에 관한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문화내셔널리즘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여기서는 본고의 이론적 배경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중문화영역에서 타국의 대중문화가 자국에 유입되었을 때, 자주 이야기 되는 이론이 ‘문화제국주의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팽창적 제국주의를 표방한 일본에 의한 지배/피지배 관계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화제국주의론은 일본대중문화에 관한 실증적인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문화제국주의론이 어떠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이론인지 검토해 보자. 문화제국주의론은 존 톰린슨(ジョン・トムリンソン)이 주도적으로 주장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제국주의의 기본적인 출발은 경제적으로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성장이 미흡한 국가로 문화적 침투를 통해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구축된다고 하는 견해이다.³⁾ 문화제국주의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톰린슨도 문화제국주의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우선적으로 제국주의에 관한 용어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⁴⁾의 선구적인 이론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제국주의 개념을 차용하여 설명하였는데,⁵⁾ 그가 말하는 제국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⁶⁾ 첫 번째는 제국주의가 정치 체제를 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 체제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의 경우는 식민지 지배와 관련하여 19세기 영국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근대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 대해 분석한 20세기 초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였다. 톰린슨은 이러한 구분법이 미국과 구소련에 의해 구축된 담론이라고 설명한다. 즉, 미국의 제국주의는 정치적인 식민주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전세계에 걸친 자본주의와 관련된 경제적 지배를 가리킨다. 그런데 구소련의 제국주의는 주로 구소련에 의한 동구권 위성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기술하기 위해 소련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보아도 동일한 표현의 제국주의가 두 개의 정치 경제 체제를 기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국주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갖는 용어의 모호성을 야기하게

3) ジョン・トムリンソン(1993)『文化帝國主義』、p.14

4) 문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또한 학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를 키워드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 말하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란 1960년대 영국의 미디어 연구를 중심으로 전개된 학문적 흐름을 말하며, 이후 일본에 전파되어 하나의 학문적 조류를 형성한 문화연구를 지칭한다.(오현석, 2018, p.272)

5) ジョン・トムリンソン(1993)、pp.17-18

6) ジョン・トムリンソン(1993、pp.17-18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의 애매모호함은 문화제국주의의 개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⁷⁾ 따라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정치적인 지배와 경제적인 지배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국주의의 개념적 정의가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국주의의 개념이 문화제국주의에서는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 것일까? 본고에서 주요한 논의 대상인 일본대중문화는 과연 문화제국주의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을 때 어떠한 형태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서, 강명구의 문화제국주의론을 참고해 보자.⁸⁾ 강명구는 문화제국주의를 문화종속현상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그에 의하면, 발달된 자본주의국가가 상대적으로 저성장한 국가에 대해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형성해 냄으로서, 그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이 글로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로 인해 동질화되고 획일화될 위험성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⁹⁾ 궁극적으로 문화제국주의론은 이러한 국가간의 지배/종속관계에 기초하여, 특정 문화 상품이 지배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국가에서 저성장국가에 전해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배적 위치의 국가의 문화적 가치나 사상 같은 것들이 저성장국가에 전달되고, 이를 통해 공급과 소비의 관계를 생산/재생산해 나가면서 기존의 제국주의적인 지배가 문화적 영역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임동욱은 문화제국주의론에 관한 이론을 세 가지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문화제국주의적인 현상이 문화산업이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산업분야에서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국제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즉, 국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활동의 결과물로서 문화와 정보의 영역에서도 국제적 불균형 관계, 또는 종속적 관계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문화제국주의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활동들을 경제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문화와 지식, 언어, 의식 등 인간의 지적인 생산물들은 그들의 사회적 조건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문화제국주의론은 다국적 독점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향성과 이윤극대화 모색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곧 문화제국주의 현상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과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경제기반이면서 상품을 생산해 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가치 같은 것도 생산해 내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문화제국주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디어 조직이 국내적으로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국제적으로는

7) 오현석(2019) 「문화제국주의론에서 바라본 타자로서의 일본」 『日本學報』, pp.347-348

8) 강명구(1993)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민음사

9) 강명구(1993), p.301

지배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기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결국에는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생산국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¹⁰⁾

이와 같은 견해에서 나타났듯이, 문화제국주의론은 기존의 제국주의적 관점에서의 지배/피지배 관계가 문화적 영역에서도 재생산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 들어 온 일본의 대중문화는 과연 이와 같은 문화제국주의적인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점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일본대중문화의 유입에 관한 담론이 문화제국주의론에 입각한 견해에서 다루어진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¹¹⁾

전술한 문화제국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시각에서 제시한 지배/피지배의 권력관계가 문화적 영역에서도 그러한 헤게모니가 지속적으로 생산/재생산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른 시각에서의 한류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한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측면, 즉 한국사회에서 유입된 일본 대중문화에 관한 담론 구축이 아닌, 일본으로 건너간 한류 현상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문화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의 한류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문화내셔널리즘에 관해 간단히 정의하자면, 그것은 네이션의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결여되어 있거나, 불안정하거나 하여,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그러한 창조, 유지, 강화를 통한 내셔널적인 공동체의 재생을 이루고자 하는 활동이다.¹²⁾ 즉, 문화내셔널리즘은 문화적 영역을 통해 자국의 내셔널리즘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동연은 이와 같은 문화내셔널리즘이 문화제국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임을 강조한다.¹³⁾ 특히, 문화내셔널리즘은 한국사회에서 일제강점기시대나 근대화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이른바 저항적 내셔널리즘의 성격을 표출해 오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다시 말해서 문화적 영역에서의 내셔널리즘의 구축은 적어도 타자로서의 일본에 대한 저항적 또는 대항적 성격의 문화내셔널리즘의 구축이 존재하였다고 생각

10) 임동욱(2012)『세계화와 문화제국주의』커뮤니케이션북스, pp.14-18
 11) 물론, 문화제국주의론에 입각한 대중문화에 대한 지배/피지배에 관한 분석은 커다란 모순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문화제국주의론에서 제기한 지배/피지배의 관계는 지나치게 생산자 입장에서의 헤게모니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명구(1993, p.302)도 문화제국주의론이 지나치게 경제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되었다고 비판한다. 즉, 문화제국주의론이 강조하고 있는 문화의 지배/피지배 관계는 오히려 문화적 교류에 있어서 한 국가의 일방적인 지배 구조만을 밝혀내는 한계에 부딪힌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문화제국주의론은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에서 강조해 온 수용자의 능동성이나 저항성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포함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12) 吉野耕作(1999)『文化ナショナリズムの社会学 現代日本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行方』名古屋大学出版会, p.11
 13) 이동연(2006)『아시아문화연구를 상상하기』그린비, p.192

된다. 물론, 이동연의 명쾌한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경우, 반일 콤플렉스의 표출인 것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는 과시증적인 기대 심리의 효과이면서, 하나의 개인을 구체적인 민족 주체로 호명하는 내셔널리즘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¹⁴⁾ 이와 같은 문화내셔널리즘의 한국적 상황은 전술한 문화제국주의론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즉, 문화제국주의론과 문화내셔널리즘은 타자로서의 일본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내셔널리즘적인 담론을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구조는 타자로서의 일본을 통한 자국에 대한 내셔널리즘의 구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화내셔널리즘을 일본에서의 한류와 맞물려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분석의 틀이 요구되어 진다.

……외형적으로 문화민족주의는 한국 대중문화의 우월감을 국가적인 맥락에서 표출하는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민족문화의 정치적 유산의 흔적이 배어 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자부심도 그 저변에 깔려 있다. 1970년대 저항적 민족문화운동가들이나 정치운동가들이 같은 시기를 살았던 상업적인 청년문화연예인들과 한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기투합할 수 있는 정서적 공통분모가 문화민족주의라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중적인 차원에서 문화민족주의는 한류에 대한 애국적인 반응을 통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문화 콤플렉스의 대항개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한류는 이제 문화적 콤플렉스에 대한 과도한 반작용이란 자기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하위 문화제국주의적’ 지배 논리를 설파하는 문화민족주의로 작용하기도 한다.(밑줄강조 필자)¹⁵⁾

이와 같은 이동연의 주장은 본고의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문화내셔널리즘에 기초하여 일본의 한류 현상을 분석할 때, 기존의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대일본 콤플렉스나 저항적 내셔널리즘과는 다른 내셔널리즘적인 담론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한류 현상이 문화제국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성격의 담론을 생산해 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화내셔널리즘을 생산해 내고 있는지,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4) 이동연(2001)「스포츠, 스펙터클, 그리고 지배 효과」『스포츠, 어떻게 읽을 것인가』삼인, pp.192-194

15) 이동연(2006), p.189

3. 일본의 한류에 대한 분석

3.1 문화제국주의론과 일본의 한류

본고의 목적은 일본의 한류가 어떠한 내셔널적인 담론을 생산/재생산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일본의 대중문화가 어떠한 성격의 담론을 생산/재생산해 왔는지를 검토해 보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본고에서는 일본의 한류 현상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하나는 문화제국주의론적인 관점에서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내셔널리즘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일본대중문화를 분석해 보자.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방이후 한국에서의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는 적대적, 배타적인 담론을 분출해 내왔다. 특히,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담론은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며, 배경의 대상이기도 한 아이러니한 존재였다. 김성민에 의하면, 해방 이후 일본 대중문화는 금지와 월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던 대상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일본 대중문화가 금지된 나름대로의 이유를 첫째, 구식민자의 문화적 영향력으로부터의 탈각(탈식민화), 두 번째, 매스미디어의 글로벌화에 대한 로컬의 투쟁(문화 제국주의 비판), 세 번째, 개발을 추진하는 신흥독립국으로서의 경제적 전략(산업적 근대화), 마지막으로 공적·사적 검열에 의한 권력의 중층적 작동(국민화)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세부적인 이유에서 한국에서의 일본 대중문화는 금지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¹⁶⁾ 이와 같은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적 상황은¹⁷⁾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부정적이었다.¹⁸⁾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출된 계기가 있는 데, 그것은 기존의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금지 정책이 개방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개방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에 들어서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¹⁹⁾ 이

16) 김성민(2014), pp.13-21

17) 그렇지만 김성민(2014, pp.80-81)은 이러한 한국적 상황 속에서 미디어를 통한 월경이라는 표현을 통해 단순히 일본 대중문화를 금지의 대상으로 묶어 버릴 수 없었던 사회구조를 비판적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그는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전과 월경을 통해 트랜스내셔널한 문화 월경을 접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궁극적으로 한일관계의 특수성(금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종의 보편적 성격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한다.

18) 김현미(2003, p.154)도 한국에서 일본 대중문화가 장기간 금지되어 온 이유를 일본대중문화의 유입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에 수행해 온 역사적 상처를 없애 버릴 것이라는 국민적 정서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19) 오현석(2019), p.353

시기에 드러난 타자로서의 일본에 관한 담론은 주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인한 ‘문화식민 지화’이다.²⁰⁾ 당시의 학계나 언론에서는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과 관련하여 폭력성이나 선정적인 내용의 문화상품이 유입되어 한국사회의 타락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배경에는 일본의 문화산업이 갖고 있는 성격을 포스트 제국주의적으로 인식하였고, 일본대중문화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한국의 대중문화가 자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었다. 이와 같은 관점은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문화제국주의적인 견해에 입각하여,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을 두려워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일본의 대중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디어 담론을 분석한 장용걸의 글을 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분명하다. 그에 의하면, 일본대중문화의 개방의 문제를 단순히 과거 역사적 상처에 기인한 금지를 넘어서, 정신적인 지배, 즉 자국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게 되고,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²¹⁾ 장용걸의 논의도 기본적으로 문화제국주의론에 입각하여, 일본대중문화에 의한 경제적 지배 이외에 정신적 지배의 위험성에 관해 논하고 있다.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일본대중문화는 개방이라고 하는 정책적 변화와 맞물려, 기존에 ‘금기’의 대상이었던 시대적 상황의 이면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저항적 내셔널리즘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우려는 일본의 한류 현상의 등장으로 기우에 불과했다. 일본대중문화는 1998년 이후 단계적으로 개방이 되었는데, 그 이후의 한국의 대중문화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결국에는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의 발발로 문화제국주의론과 같은 현상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전개된 배경에는 문화제국주의론에서 간과한 사실이 존재한다.²²⁾ 즉, 문화제국주의론에서 강조한 제국주의적인 성격의 문화가 지배/피지배의 구조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하는 가설, 이러한 가설은 마르크스의 경제결정론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실질적인 소비자의 능동성을 경시한 오류를 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한혜정은 한류 열풍을 글로벌리제이션으로 인한 문화 상품의 소비에 대한 개방성에 주목한다.

20) 김효진(2011)「한류 이후 일본대중문화 수용의 새로운 흐름」『지식의 지평』한국학술협회의, p.78

21) 장용걸(2006)「일본대중문화의 수용 과정에 나타난 미디어의 내셔널리즘에 관한 고찰」『日本語教育』한국일본어교육학회, p.241

22) 이동후(2003, p.129)는 미디어의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세 가지 반론을 제시한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흥행한 작품이라도 시청자들의 수용은 지역의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각 지역의 수용자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사회, 문화, 경제적 조건에 따라 미디어를 다르게 읽을 수 있고, 전적으로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자체 프로그램들이 수입된 프로그램보다 더 선호된다는 점이다. 자국 내에서 생산된 프로그램들이 주요 편성 시간대를 더 많이 차지해 왔고,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동질적인 세계문화가 형성되기보다는 문화적 근접성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문화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글로벌리제이션에 의한 대중문화의 전파가 국경을 넘어서 문화 공유 집단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문화상품을 향유하는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느슨한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단일한 국가 아이덴티티를 뛰어 넘는 공간들이 생성된다는 것이다.²³⁾ 이러한 조한혜정의 관점은 기존의 문화제국주의가 단순히 내셔널리즘의 이데올로기 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부분을 보다 다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대안적인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대중문화의 영역을 단순히 국가 중심적인 구조에서 탈피하고자 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3.2 문화내셔널리즘과 일본의 한류

그렇다면 여기서는 문화내셔널리즘에 입각하여 일본의 한류 현상에 관해 논의해 보겠다. 문화내셔널리즘이 문화적 영역을 통해 자국의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일본의 한류는 어떠한 담론을 생산하였을까? 우선, 이동연은 한류가 갖고 있는 시사점을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대중문화산업의 논리로서 한류가 한국의 문화산업에 선진화를 이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중심의 논리로서, 한류가 한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아시아 지역에 광고효과를 초래하였으며, 세 번째는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아시아 내 대중문화 소비자들의 기호를 넓히고 강력한 팬덤 문화의 구축을 통해 아시아 국가간의 문화일상의 교통이 확대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²⁴⁾ 두 번째 지적에서 나타났듯이 한류의 역할은 분명히 한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일본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음에는 분명하다. 한류가 문화내셔널리즘으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일본에 진출한 한류를 통해서 한국인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고취시키는 이데올로기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 틀림없다. 또한 그러한 프라이드 구축에는 단순히 대중문화의 인기에 흡족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프라이드도 배경에 깔려 있다. 이러한 부분은 문화제국주의적인 관점, 즉 기존에 한국 사회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타자를 통해 적대적, 배타적 내셔널리즘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저항적 내셔널리즘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식민지 국가로서 느껴 왔던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나 배타성과는 차별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 일본에서의 한류는 분명히 문화내셔널리즘의 성격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화내셔널리즘과 같은 관점은 이와부치(岩淵)도 비슷한 분석을 시도하

23) 조한혜정(2003)「글로벌 지각 변동의 징후로 읽는 ‘한류 열풍」『‘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연세대학교 출판부, pp.40-41

24) 이동연(2006), p.185

였다. 그는 일본의 대중문화가 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일시적으로 인기를 얻어 가는 과정에서 일본사회의 문화내셔널리즘²⁵⁾적인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을 비판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문화적 무취상품’²⁶⁾이라고 하는 특징이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오르고, 초국가적인 일본산 소프트 상품이 일본인들의 내셔널리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한다. 즉, 1980년대부터 아시아에서 인기를 구축해 온 일본대중문화가 국외의 진출의 담론을 생산해 내었고, 이를 통해 일본이 글로벌적인 문화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여, 아시아와의 문화적 외교를 촉진시킴으로서 일종의 문화내셔널리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²⁷⁾

이와 같은 이와부치의 지적은 일본의 한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일본에서의 한류가 최초로 발발하게 된 대중문화는 드라마 ‘겨울연가’임에는 이견이 없다.²⁸⁾ 그런데 ‘겨울연가’가 갖고 있는 텍스트성은 전통적인 한국 가족의 형태와 트렌디드라마로서의 형식이 혼합된 일종의 혼종적인 성격의 텍스트 형식을 갖추고 있다.²⁹⁾ 즉, 일본에서의 한류가 무국적성, 무취적인 혼종성을 포함한 드라마 텍스트가 전달되었고, 이러한 텍스트의 특징이 인기를 얻는 과정은 이와부치가 말한 문화내셔널리즘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한류 현상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혼종적인 성격을 포함하면서도, 한국 내에서 과거 지배/피지배 관계의 제국주의 일본에서 자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한 프라이드를 고취시키는 담론의 생산, 이는 궁극적으로 자국에 대한 문화내셔널리즘의 기능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일본의 한류 현상을 단순히 문화내셔널리즘으로 이해하였을 경우, 또 다른 이론적 모순에 부딪치게 된다. 본고에서 살펴 본 문화제국주의가 비록 팽창적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지만, 문화내셔널리즘 역시 또 다른 국가 중심의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한류 현상을 문화내셔널리즘의 현상으로 이해했을 경우, 이는 곧 또 다른 내셔널리즘의 생산/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결국에는 근대국민 국가 구축 이후의 끊임없이 제기된 내셔널리즘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담론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25) 岩淵功一(2001, p.97)는 이와 같은 내셔널리즘을 소프트 내셔널리즘으로 부르고 있다.

26) 이와부치(岩淵)는 일본의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무취성, 즉 일본적인 색깔이 아닌 혼종성이 강조되는 텍스트가 오히려 아시아 소비자에게 높은 호응을 얻게 되고, 이러한 무취성이 일본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27) 岩淵功一(2001), p.97

28) 물론, 일본에서의 한류가 발생되기 전에, 이미 한국의 트렌트 드라마가 90년대에 서서히 아시아에서 한국인의 자존심을 높이는 문화 상품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이동후, 2003, p.126)

29) 오현석(2017), p.93

4. 나가며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발생한 한류 현상에 대해 문화제국주의론과 문화내셔널리즘을 중심으로 어떠한 형태의 내셔널적인 담론을 구축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을 제시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본고에서의 고찰 방식이 선행연구에 대한 리뷰 중심의 논의를 전개하였고, 이는 지극히 제한적인 분석에 머물러 있는 한계성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본고에서 검토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분석의 틀을 제시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적인 이론적 모델을 모색해 보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과연, 일본의 한류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대안적인 관점은 무엇일까? 여기서 탈식민주주의적인 관점에 관해 잠깐 접해보고자 한다. 탈식민주주의적인 관점은 에드워드 사이드가 제시한 개념인 오리엔탈리즘과 깊은 연관성을 맺는다. 사이드는 기존에 구축된 인종, 내이션, 제국 등의 틀 안에서 구축된 문제의식, 즉 서구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해체하고, 보편적인 관점을 거부하며,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관점은 본고에서 검토한 문화제국주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일본의 한류 현상에 대해 조한혜정 역시 탈식민주주의적인 관점을 강조하는데, 그녀는 한류 현상이 초래한 한국 문화의 자부심이나 한국 문화의 우수성에 관한 담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³⁰⁾ ‘한류’와 ‘일류’를 탈식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권용석(クオン・ヨンソク)은 한일 간의 반복적인 역사적 관계가 다양한 형태의 내셔널리즘의 생산재생산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한일관계가 탈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트랜스내셔널적인 한일관계의 재편의 필요성을 역설한다.³¹⁾

결국에는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근대국민국가형성의 산물인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어떠한 형태로 극복하여 대안적인 담론을 생산해 내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는 곧 본고에서 검토한 문화제국주의론이나 문화내셔널리즘에 관한 논의와 탈식민주주의 이론을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이론적 접근에 관한 총체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실증적인 논증을 통한 이론정립이라고 하는 과제로 남기고 싶다.

30) 조한혜정(2003), pp.26-31

31) クオン・ヨンソク(2010), p.266

【參考文獻】

- 강명구(1993)『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민음사
- 김성민(2014)『일본을 禁하다 금제와 욕망의 한국대중문화사 1945-2004』글항아리
- 김현미(2003)「일본 대중문화의 소비와 팬덤(fandom)의 형성」『한국문화인류학』36-1, 한국문화인류학회, pp.149-186
- 김효진(2011)「한류 이후 일본대중문화 수용의 새로운 흐름」『지식의 지평』한국학술협의회, pp.76-95
- 오현석(2017)「혼중성 이론에서 바라본 일본의 한류」『日本学』45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81-102
- _____ (2018)「일본의 문화연구와 저항성에 관한 일고찰」『日本学報』116집, 한국일본학회, pp.271-287
- _____ (2019)「문화제국주의론에서 바라본 타자로서의 일본」『日本学報』118집, pp.343-360
- 이동연(2001)「스포츠, 스펙터클, 그리고 지배 효과」『스포츠, 어떻게 읽을 것인가』삼인, pp.182-208
- _____ (2006)『아시아문화연구를 상상하기』그린비
- 이동후(2003)「한국 트렌디 드라마의 문화적 형성 - 탈국가적 문화 수용 양식을 중심으로-」『‘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연세대학교 출판부, pp.125-153
- 임동욱(2012)『세계화와 문화제국주의』커뮤니케이션북스
- 장용걸(2006)「일본대중문화의 수용 과정에 나타난 미디어의 내셔널리즘에 관한 고찰」『日本語教育』37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235-270
- 조한혜정(2003)「글로벌 지각 변동의 징후로 읽는 ‘한류 열풍」『‘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연세대학교출판부, pp.1-42
- 岩瀬功一(2001)『トランスナショナルジャパン アジアをつなぐポピュラー文化』岩波書店
- クォン・ヨンソク(2010)『「韓流」と「日流」文化から読み解く日韓新時代』NHKブックス
- ジョン・トム린슨(1993)『文化帝國主義』青土社
- 吉野耕作(1999)『文化ナショナリズムの社会学 現代日本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行方』名古屋大学出版会

논문투고일 : 2019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9년 08월 06일
2차 수정일 : 2019년 0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8월 16일

〈要旨〉

일본의 한류 현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 문화제국주의론과 문화내셔널리즘을 중심으로 -

오현석

본고는 일본에서 발생한 한류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문화제국주의론과 문화내셔널리즘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기존의 대중문화영역에서 논의된 일본은 제국주의적인 이미지와 맞물려 금지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의 한류 현상은 새로운 내셔널리즘적인 담론을 생산해 내었다. 그것은 기존의 일본에 대한 저항적인 내셔널리즘이 아닌, 자국에 대한 프라이드를 고취시키는 내셔널리즘의 표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에 관한 담론이 배타성을 갖는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는 내셔널리즘적인 담론을 생산해 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는 근대국민국가 형성이후,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기능이 계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역할이 발생하는 모습도 존재한다. 이에 본고는 일본의 한류 현상에 대한 탈식민지주의적인 관점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의 이론적 틀을 도출해 낼 것을 제안한다.

A Theoretical Study on the Korean Wave in Japan

- Cultural Imperialism and Cultural Nationalism -

Oh, Hyun-Suk

This study is a theoretical study of Korean Wave phenomenon in Japan. In this study, cultural imperialism and cultural nationalism were discussed. Japan, which was discussed in the area of popular culture, has been recognized as an object of prohibition in connection with imperialistic images. However, the Japanese wave phenomenon produced a new national discourse. It is not the traditional nationalist resistance against Japan, but the nationalism that promotes the pride of its own nation. These results produced national discourses that heighten the self-esteem of Korea, not the discourse of nationality, which is exclusive to Japan. However, there is a contradiction in this result that after the formation of the modern nation-state, the role of ideological function called "nationalism" continues to be reproduce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o derive the theoretical framework from a more diverse perspective through the postcolonial perspective of the Korean Wave phenomenon in Japan.